

달콤하고... 위험하고... '그림으로 읽는' 사랑

사랑의 미술관

이케가미 히데히로 지음



'사랑'이란 무엇인가? '지구'에 인류가 뿌리를 내린 이래 끊임없이 묻고, 답한 명제일 것이다.

최근 출간된 '사랑의 미술관'은 이에 대한 화가들의 응답이다. 저자인 서양미술사가 이케가미 히데히로(池上英洋) 일본 도쿄조형대학 교수는 그리스·로마신화부터 르네상스,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랑'과 그에 얽힌 '아름다움(美)의 모든 모습을 살펴본다. 저자는 중학생 시절 프랑스 르누아르의 작품 '이레느 강 단베르 양의 초상'을 보며 그림속 소녀와 첫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한다.

'사랑하고 싶은 그대를 위한 아주 특별한 전람회'라는 부제를 붙인 이 책은 연인들의 아틀리에, 사랑의 신화, 구애의 정원 등 7개 주제 25개 테마로 나눠 '사랑'을 화폭에 담은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한다. '사랑을 테마로 한 서양미술사' 또는 '그림으로 읽는 사랑의 문화사'라 할 수 있다.

유명 화가들은 연인이나 부인, 자녀를 작품속 모델로 삼았다. '바르베리니 성 가족'(안드레아 델 사르토)과 '젓을 빼는 아이'(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노란색 스웨터를 입은 잔 에뤼테른'(아메데오 모딜리아니)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프랑스 여류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은 로맹과 연인 관계였다. 인도 연애시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사쿰달라'와 '중년'



'사랑'은 수많은 예술가들이 화폭에 담은 테마이다. 사랑에 빠지면 아무 것도 보지 못하는 연인들을 희화화한 벨기에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연인들'(1928년 작).

등 그녀의 조각상에는 상처받은 여류 예술가의 삶의 흔적이 배어있다. 클로드 모네가 그린 '임종에 맞은 카미유'에 대해 저자는 "화가의 관심은 분명 아내의 얼굴모습을 남기는 일이 아닌, 빛과 색의 변화를 구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평하며 인상파와 연관짓는다.

사랑에 얽힌 그리스·로마신화 속 등장인물들은 많은 작품의 소재가 됐다. 바람이 많은 제우스와 사랑에 빠지게 하는 활을 쏘는 큐피드(에로스), 미와 사랑

의 여신 아프로디테(비너스) 등은 화가에 따라 다르게 작품화됐다. 산드로 보티첼리와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가 각각 그린 '비너스의 탄생'은 400여년의 시차만큼이나 차이가 확연하다.

남편의 애정표현 수단인 입맞춤도 구스타프 클림트와 프란체스코 하에즈, 안토니오 카노바, 르네 마그리트에 의해 작품의 중요 소재로 쓰였다. 저자의 눈길은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얀 판 에이크)과 '결혼'(안 스테인), '농민의 결혼

식 춤'(피터르 브뤼엘) 등 작품에 닿는다. 이 그림들은 중세와 근대의 성(性), 결혼문화를 상세하게 담은 풍속화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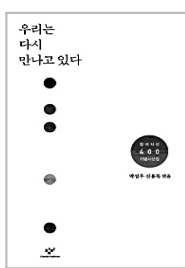
저자는 '성애와 속애'(티치아노 베첼리오) 작품을 설명하며 "'사랑'이야말로 모든 사물의 탄생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인간의 영원한 테마인 '사랑'의 거대한 숲속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다산북스·1만7000원>/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가파른 길 짧게 나눠가듯... '창비 시선' 400번 기념집

우리는 다시 만나고 있다

박성우·신용목 엮음

출판사 창비가 '창비 시선'이라는 이름으로 시집을 발행한 건 1973년이였다. 첫 시집은 신경림 시인의 '농무'. 40여년의 시간이 흘렀고 고은의 '새벽길',곽재구 '사평역에서', 김용택 '섬진강', 최영미 '서른, 전치는 끝났다' 등 모두 399권의 시집이 독자를 만났다. 400번째 시집은 작가 86명의 작품을



한 데 모은 '창비 시선 400번 기념 시선집 - 우리는 다시 만나고 있다'. 박성우·신용목 시인이 엮은 책은 301년부터 399년까지 각 시집에 실린 시중 비교적 호흡이 짧은 시를 선별했다. 두 권의 책을 낸 시인은 한편만 선택했으며 표제는 신경림 시집 '사진관집 이층' 중 '별'에서 따왔다.

첫 시는 301번째 시집인 나희덕 시인의 '야생사과' 중 '기억한다, 그러나', 마지막 시는 399번째인 이병조 시인의 '까치독사' 중 '풍경 속의 그늘'이다.

그밖에 함민복의 '눈물을 자르는 눈꺼풀처럼'에 실린 '금란 시장', 고은의 '부탁', 문태준 '먼 곳', 손탁우 '담양에서', 김선우 '아무도 살지 않아서 좋았다', 이창기 '아들과 나란히 밭길을 걸을 땀' 등이 담겼다. 각 작품 뒤에는 해당 시가 수록된 시집에 실린 '시인의 말'이 한줄씩 달렸다. <창비·1만원>/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엮은 이들은 "책에 실린 작품은 단시(短詩)라고 불려도 좋고, 한뼘 시나 손바닥 시라고 불려도 좋을 것"이라며 "짧은 시가 쉽다는 뜻이 아니라 가파른 길을 짧게 나눠서 걸어가면 어떻게 하는 기대에서 골랐다"고 말했다. "길지 않으나 오래 마음을 흔들며 일렁이게 하는, 아름답고 따스한 시편들"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이번 400번 기념 시선집 출간을 기념해 김사인 시인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詩詩한 다방' 공개방송과 독자와의 만남 행사 등 다양한 기념 행사들도 마련한다. <창비·1만원>/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당신의 부는 친구가 결정한다=심리 상담사 만팅이 쓴 책. 톨스토이를 발굴한 투르게네프, 평생 상호보완의 관계였던 괴테와 실러, 포숙과 관중의 신의, 적조차 친구로 만든 링컨, 알리바바 창업멤버의 끈끈한 우정 등 성공하거나 실패한 수많은 대인관계 사례가 풍부하게 등장한다. 왜 친구가 필요하고 중요한가부터 어떤 친구를 찾아야 하는지,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 등 8장에 걸쳐 소개한다. <울렛북스·1만3500원>

▲한 권으로 읽는 대승경전=대승경전은 기원을 전후하여 반야경을 시작으로 많은 경전이 성립됐다. 성립 시기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용수 이전의 대승경전을 초기 대승경전, 그 이후 세천까지를 중기 대승경전, 그 이후 밀교의 성립까지를 후기 대승경전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서도 대승불교의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인 '화엄경', '법화경', '유마경', '열반경', '금강경'을 한 권에 묶었다. <민중사·2만5000원>

▲무통=일본의료소설대상 수상 작가 구사카베 요의 장편소설. 고베의 고급 주택가에서 일어난 일가족 살인 사건을 둘러싸고 '심신상실자의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 제39조의 문제점과 환자의 절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병명을 알아맞히는 두 천재 의사의 대결, 선천적 무통증, 침두중, 조현병 등 의학적 요소까지 두루 담았다. 엔터테인먼트 소설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평을 받았고 지난해말 TV 드라마로도 제작됐다. <예문아카이브·1만4800원>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심리학 책과



사전=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위대한 마음의 교과서. 현대사회는 커뮤니케이션 사회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려면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우선이다. 상대의 성격도 알 수 있다면 더는 바랄 것이 없다. 책은 인간을 이해하는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억지로 웃어 야 하거나 비위를 맞춰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스타북스·1만5000원>

▲양광 페리블=20세기 프랑스 아방가르드 예술을 이끈 장 콕트의 '양광 페리블'. 장 콕트는 50여년에 걸쳐 시와 소설뿐 아니라 평론, 연극, 영화, 미술에 이르기까지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하고도 방대한 작품 활동을 펼쳤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소설 '양광 페리블'은 상징적인 도덕관념과 가상세계의 질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10대의 두 남매를 둘러싼 짧고 강렬한 이야기이자 소설로 쓴 시이다. <창비·1만원>

어린이 책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노빈손이 알려 주는 전문가의 세계 시리즈. 저자인 현직 변호사가 법과 변호사에 대해 상세하고 생생하게 들려준다.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방법부터 법을 대하는 변호사의 자세, 변호사가 실제 의뢰인을 위해 하는 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변호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뜨인돌·1만2000원>

▲아트믹스=원전 사고로 자신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한 소년이 더욱 긴박한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는 박진감 넘치는 SF. 국내 최초 히어로 동화다. 지구를 공격해 오는 괴수를 물리치는 아트믹스의 활약은 재미와 함께 후쿠시마 이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비룡소·9000원>

▲파란 분수=여름 한철 물줄기가 나올 때면 분수대는 눈 깜짝할 사이에 놀이터가 된다. 하지만 물이 멈추버리면 분수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만다. 물 한 방울 나



오지 않는, 오래된 분수를 보며 작가는 시원한 상상으로 어린이 독자를 이끈다. 힘 있게 차고 나오는 상상력은 짜릿한 해방감을 안겨 준다. <시계열·1만3000원>

▲우리 땅 곤충 관찰기4=한국의 파브르 정부의 박사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쉬운 말로 풀어낸 한반도 곤충기 시리즈 완결편인 '신기한 능력을 가진 곤충들'편. 곤충의 진기한 생김새와 생태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를 아울러 살아가는 곤충이라는 생물이 과연 무엇인지,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인간은 곤충과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등 더 큰 이해를 가지도록 한다. <길벗북스·1만2000원>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매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www.naver.com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 &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예약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광을 전할뿐 아니라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년 가까이 있습니다.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2인승, 25인승 무료이용
평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임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농가대상)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참숯구이 민물장어와 숙지환 삼계탕을 개시합니다.
솔향기정식, 돼지갈비, 참숯구이 민물장어, 숙지환삼계탕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참숯가마 찜질방 / 족욕탕 / 참숯구이 민물장어 & 돼지갈비 전문점 / 노래방 & 동전노래방